

국내 이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가에 대한 연구*

- 민족과 여가제약의 관점에서 -

Leisure of Foreign Immigrant Workers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Ethnicity and Leisure Constraint Thesis

沈 裁 名**

Shim, Jae-Myung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oreign immigrant workers' leisure from the leisure constraint perspective. The data was collected in two stages: firstly, items constituting each cognitive domain were identified using freelisting method, and secondly, developed based on the freelisting data, a second survey was conducted for cultural consensus analysis. The consensus analysis aims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single culture in a given cultural domain and infer the culturally correct information based on the agreement of the respondent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as consensus with respect to the use of leisure time and constraints to leisure while there was lack of consensus regarding the meaning attached to leisure. Overall work and/or the work-related matters were the most salient themes regarding the foreign workers' leisure: Work represented the most important use of leisure time, and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family appeared to be the primary leisure constraint. Some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핵심용어(Key words) : 외국인근로자(Foreign workers), 여가(Leisure),
프리리스트팅(Freelisting), 민족(Ethnicity),
문화합의분석(Cultural consensus analysis),
여가제약(Leisure constraints)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32-B00621)

** 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e-mail: jxs653@dongguk.ac.kr

I. 서 론

법무부자료에 따르면 2010년 5월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 근로자는 56만 여명으로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 이래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왔다. 최근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 중 절반을 외국인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다. 사실 그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차지하더라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우리가 다양하게 접하게 되는 대중매체기사나 생활 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그리 낮은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외국인근로자의 여가에 대한 연구는 세 가지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여가학의 관점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자연스러운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여가학과 같은 응용학문의 생성동기 혹은 존재이유가 사회현상 혹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추구라고 할 때 외국인 근로자는 오랜 동안 단일민족사회로 여겨져 온 우리사회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현상이라는 점, 더구나 그것이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라기보다는 문제점과 논쟁거리를 내포하는 부정적 변화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의 여가연구에는 개인의 여가를 일정부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는 여가학의 근본적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여가학이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지향(social welfare oriented)의 관점을 가졌다는 지적(Veal, 2002)이 반영하듯, 외국인근로자의 여가연구는 그들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보다 균등한 여가기회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표현이다.

끝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여가에 대한 연구는 그들에 대한 보다 온전한 이해를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지만 여가에 대한 연구를 찾기 어려운 것은 여가라는 주제의 잔여적(residual)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여가란 인간의 삶에서 보다 중요한 것들 -가령, 일, 건강, 거주, 교육, 등- 이 충족된 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점에서 보면 '외국인근로자의 여가'란 어쩌면 용어의 이질적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한국에서의 삶이 그러한 기본적 요소들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리라고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우선순위가 낮은 삶의 영역에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들의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이해를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외국인근로자라는 주제는 그 본질적 요소가 고용과 노동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경제적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국내의 고임금

과 노동력부족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경제학적 현상이며, 국제이주이론과 같은 경제이론은 국내의 외국인근로자의 발생과 유입에 대해 유용한 설명을 제공한다(석현호, 2003). 그러나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시작은 경제적이나 그 효과는 사회적이라는, 그리하여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경제적 동기에서 시작하였으나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풀어야한다는 강수들(1996)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합리성(social rationality)라는 개념은 외국인근로자의 내적향상과 삶의 질이 우리사회전체의 삶의 질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으로서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경제적 효율성이 아닌 사회적 규범과 가치에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근로자의 여가는 바로 강수들(1996)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합리성을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가란 어느 인구집단의 삶의 질의 발전을 보여주는 최종적 지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여가와 관련되어 가장 먼저 연상되는 이론이 여가제약과 (소수)민족의 여가에 대한 이론이다. 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후자는 그들의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들의 이러한 특성이 여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한 점에서 이 이론들이 외국인근로자의 여가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관점을 제시하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문화합의분석(cultural consensus analysis)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의 외국인근로자들의 여가시간이용과 그들이 인식하는 여가의 의미와 여가제약에 대해 살펴보고 그를 통해 상대적 소외를 경험하리라고 예상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여가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한다. 문화합의분석은 문화인류학에서 발전된 조사방법으로 문화영역에 하나의 응집된 문화가 존재하는가를 알아보고 그 영역에서 문화적으로 올바른 정보(culturally correct information)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보다 자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여가제약(Leisure constraints)

왜 여가참여를 하지 않는가(혹은 못하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여가제약은 복미

지역의 여가연구에 있어 중요한 주제가 되어왔는데 그것은 여가가 하나의 중요한 공공서비스로 인식된 북미지역에서 사회구성원 다수의 여가참여와 보다 평등한 여가기회가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어온 전통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여가제약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제약이론이 여가제약의 내재적(intra-personal)제약, 대인적(interpersonal)제약, 구조적(structural)제약의 세 유형으로 구분한 Crawford & Godbey(1987)의 분류모형이다. 이 제약모형이 가지는 의미는 여가제약의 개념의 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에는 여가제약이 여가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여가참여를 제한하는 요인들에 국한되었다면, 이 제약모형은 여가에 대한 욕구와 관심을 제한하는 심리적 요인들도 제약요인임을 인식하게 하였다(Jackson, 1990). 비슷하게 Henderson, Stalnaker & Taylor(1988)은 여가의 기호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제약을 선행제약(antecedent)이란 용어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 제약모형의 보다 큰 기여는 그 후속논문에서 찾을 수 있다. 즉 Crawford, Jackson & Godbey(1991)는 개념적으로 단절되어 있던 여가제약개념들을 통합하여 제약이 순차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제약의 단계적(hierarchical)모형을 제시하였다. 여가제약은 그 영향력이 강한(potent) 것부터 먼저 나타나며 그 제약이 사라지거나 극복될 때 후속 제약이 나타나는데 그 순서는 내재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이라는 것이다.

단계적제약모형은 여가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연결선상에서 다양한 여가제약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제약과 관심, 제약과 참여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약간의 관계에 대해 인식하게 함으로써 여가제약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가령,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계층이 오히려 시간과 돈과 같은 구조적제약을 더 많이 보고하는 다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에 대해 이들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비해 내재적제약이나 대인적제약에서 자유로움으로써 구조적 제약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계모형에 따르면 구조적제약은 내재적제약과 같은 선행 제약이 극복된 후에야 표면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적제약이나 대인적 제약의 극복이 어렵다고 인식되거나 그러한 제약의 경험이 장기화될 때 여가에 대한 관심이나 욕구가 약화되거나 사라짐으로써 구조적제약이나 대인적제약이 내재적제약으로 발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제약의 내면화(internalization of constraints)(Mannell & Kleiber, 1997)와 같은 개념 역시 제약의 단계적 모형을 통해 개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약의 단계적 모형이 가지는 다른 의미는 그것이 제약의 협상(negotiation)이

라는 개념을 내포하였다는 것이다. 개인에게 가용가능한 자원을 이용해 제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으로서 정의되는 협상은 제약에 대한 인간의 수동적 대응-즉 여가비참여- 보다 적극적 대응-협상을 통한 여가참여-를 상정하였다. 실제로 제약이 있음에도 여가활동이 일어난다는 조사결과는 찾기 어렵지 않다(가령, Kay & Jackson, 1991; Shaw, Bonen & McCabe, 1991). 이처럼 제약의 협상은 여가제약의 유무 결과가 여가참여 혹은 비참여라는 이분법적 구분에서 나아가 여가활동의 강도(intensity)나 빈도의 연속선상에서 고려하게 하였고 이러한 효과는 여가활동이 제약의 유무보다 제약의 협상의 정도에 달려있다(Jackson, Crawford & Godbey, 1993)는 지적이나, 여가에 대한 기호나 참여 뿐 아니라 경험(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제약의 정의(Jackson, 1997)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후 여가제약연구에 있어 특기할만한 이론적 발전이라고 한다면 제약의 연구에 동기(motivation)를 도입한 것을 들 수 있다. Jackson, Crawford & Godbey(1993)이 균형가설(balance proposition)에서 이미 여가제약에 있어 동기의 역할을 언급하였고, Carroll & Alexandris(1997)가 동기와 제약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양자간 부의 상관관계를 밝힌바 있으나, 여가동기를 여가의 제약과 협상의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Hubbard & Mannell(2001)의 연구가 이론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Hubbard & Mannell(2001)은 네개의 대안모형을 설정하였는데 동기가 제약의 협상을 촉진함으로써 여가참여에 대한 제약의 부정적 효과를 중재하는, 즉 동기가 협상을 통해 참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약완화모형(constraint-effect mitigation model)을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동기가 클수록 더 많은 협상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Hubbard & Mannell(2001)이 보편적 차원의 동기를 이용하였다면 Alexandris, Tsorbatzoudis & Grouios(2002)는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이론을 근거해 동기를 내재적, 외재적, 무동기(amotivation)로 구분하고 제약→동기→참여로 이어지는 모형을 테스트하였는데 이 연구의 중요한 발견이라면 여가비참여에 내재적제약과 무동기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내재적제약이 무동기를 매개로 참여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동기에 초점을 맞춘 여가제약연구를 찾을 수 있는데, 제약과 동기간 인과관계에 대한 정철·이훈(2011)의 연구에서 동기가 제약에 선행하는 모형보다 제약이 동기에 선행하는 모형이 우월함을 보여준바 있다.

보다 최근의 제약연구의 흐름으로서 자기유능감(self-efficacy)의 개념을 도입한 일련의 연구가 눈에 띈다. 역시 Jackson *et al.*이 1993년의 이론적 논문에서 제약의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제약을 성공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그러한 자신감으로서 이후의 연구자들이 선택한 것이 자기유능감이란 개념이다. 자기유능감이란 희망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성공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스스로 가지는 믿음으로 정의되며 개인이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 어떤 긴장상황에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투자할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Bandura, 1977; Loucks-Atkinson & Mannell, 2007에서 인용). 자기유능감이 높으면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려는 특성이 강하므로 자기유능감이 높으면 여가제약의 협상, 극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유능감을 이용한 여가제약연구를 보면 Loucks-Atkinson & Mannell (2007)은 여가제약을 성공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협상유능감(negotiation efficacy)란 용어를 고안하고 협상과정에서 협상유능감의 역할에 대해 네개의 경로모형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협상유능감이 협상노력과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그를 통해 여가참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가참여에 대한 협상유능감의 간접적 효과를 발견하였다. White(2008) 역시 구조방정식분석을 통해 협상유능감이 동기를 매개로 참여에 간접적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두 연구간 언급할만한 차이라면 전자가 설문지에 제시된 제약항목들에 대해 이를 협상할 수 있는 자신감의 정도를 이용해 유능감을 측정하였다면 후자는 Bandura의 자기유능감의 하위개념을 반영하도록 측정항목을 고안하였다는 점이다. Tsai & Coleman(2009)는 자기유능감과 여가제약이 야외여가에 대한 관심, 참여의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조사하였는데 여가제약보다 자기유능감의 영향이 더 큼을 발견하였다. 국내에서는 오정학·김철원·김종갑(2011)이 Loucks-Atkinson & Mannell(2007)과 White(2008)의 모형을 이용한 비교연구를 통해 자기유능감을 이용한 여가제약협상모형의 타당성을 보여주고 자기유능감이 여가제약연구에 유용한 개념임을 보여주었다.

2. 여가와 민족이론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의 여가와 관련해 생각할 수 있는 여가이론으로 소수민족의 여가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면 취업을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외국인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소수민족이라는 특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여가연구가 우리보다 먼저 발전되고 또 다민족국가인 북미지역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여가는 자연스럽게 발전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소수민족의 여가이론 역시 이들의 소수민족이란 특성이 여가참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임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여가제약의 관점을 가지는 것을 특기할 만하다.

가령 Washburne(1978)의 주변이론(marginality theory)과 민족이론(ethnicity theory)은 소수민족의 여가연구에서 대표적인 이론인데 이 이론이 나오게 된 동기가 흑인들이 백인에 비해 야외(wilderness)여가 참여율이 낮은 것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여가제약개념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자가 흑인의 낮은 야외여가참여를 여가자원의 부재로서 설명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제약과 유사하다면, 후자는 민족고유의 규범이나 가치관으로써 설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내재적 혹은 구조적 제약과 닮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많은 소수민족의 연구가 Washburne의 개념을 채용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이 소수민족의 여가에 중요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였다는 점은 틀림없지만 두 이론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거나 설명력이 낮다는 점에서 소수민족의 여가를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예를 들어 미국내 멕시코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공공여가시설의 이용에 가장 중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Floyd, Gramann, & Saenz, 1993)나 스스로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흑인과 백인이 비슷한 여가취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Floyd, Shnew, McGuire & Noe, 1994), 흑인과 히스패닉이 백인에 비해 골프나 스키와 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스포츠 참여가 낮은 연구결과(Cunningham, Leivadi & Apostolopoulous, Stodolska & Yi(2003)에서 인용)들이 주변이론을 지지하는 연구라고 한다면, 미국내 히스패닉의 여가가 다른 유럽계 백인이나 흑인에 비해 정적인 특성을 보이고(Hutchison, 1987), 가족, 친지와 같이 그룹 단위의 여가유형을 보이는 것(Hutchison, 1987; Irwin, Gartner & Phelps, 1990), 엄격한 성별의 구분이나 히잡(이슬람 여성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머리에 쓰는 천)과 같은 관습이 이슬람 여성이 운동과 같은 활동적인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Walseth & Fasting, 2003)는 민족이론을 지지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Washburne 이후 소수민족의 여가에 대한 다른 중요한 패러다임은 차별인지이론(perceived discrimination theory)이다. West(1989)는 공원방문객을 대상

으로 한 자신의 연구에서 주변이론과 민족이론의 증거를 모두 발견함으로써 이 이론들이 소수민족의 여가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고 많은 흑인이 공원을 방문함에 있어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을 보고한 것에 주목하여 이들의 공원이용이 낮은 이유로서 이들이 인지하는 차별에 대해 지적하였다. 민족간 상호작용 혹은 갈등의 개념을 도입한 차별인지이론은 소수민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그들의 여가활동의 종류나 장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Blahna & Black(1993, Stodolska & Yi-Kook(2005)에서 인용) 역시 자연공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종차별이 소수민족의 공원방문에 중요한 장애요인임을 발견하고 소수민족의 자연공원이용을 제한하는 인종차별을 다른 이용자들로부터의 차별, 공원관리자로부터의 차별, 공원시설의 차등관리, 잠재적 인종차별에 대한 두려움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도심공원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Gobster(2002)는 공원을 이용하는 소수민족이 다른 이용자, 공원관리자, 그리고 경찰들로부터 차별적 언어, 신체적 제스처, 위협을 느끼게 하는 낙서와 같은 비언어적 메시지, 백인과는 다른 서비스, 백인 이용지역과 소수민족 이용지역의 차등적인 시설과 같은 차별적 요소들을 경험하였으며 그것이 소수민족의 공원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2002년 911 사건 이후 미국내 아랍계 무슬림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위협이 이들의 여가활동 반경을 가족이나 같은 민족으로 제한하여 그들의 여가가 더욱 가족/친지/민족 지향적으로 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Livengood & Stodolska(2004)의 연구결과도 차별인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소수민족의 여가연구의 다른 흐름은 동화(assimilation)의 관점을 이용한 것이다. 두 개 이상의 문화단위가 만날 때 문화적 경계가 감소되는 과정으로 정의되는 민족적 동화(ethnic assimilation)(Yinger, 1981; Floyd & Gramann, 1993에서 인용), 소수민족이 주류민족의 문화특성을 획득함으로써 소수민족의 특수성이 사라지고 주류사회의 문화를 닮아가는 것으로 정의되는 문화동화(acculturation)(Gordon, 1964; Floyd & Gramann, 1993에서 인용)와 같은 개념은 소수민족이 주류사회의 가치관과 행동유형을 수용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여가도 달라질 것을 가정한다. 특히 Stodolska(1998)는 문화동화의 개념을 이용해 여가제약을 정적인 요인과 동적인 요인으로 구분함으로써 소수민족의 여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요인들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문화동화의 정도에 따라 변함을 지적하였다. 이 동화 패러다임은 소수민족의 여가를 설명함에 있어 문화적(민족적) 요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Washburne(1978)의 민족이론과

달랐다고 할 수 있으나 민족구성원이 동화 정도에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여가제약의 경험이 다르다고 하는 민족의 내적이질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이론과의 차이를 찾을 수 있다.

소수민족의 여가에 문화동화를 이용한 연구들을 보면, 동화정도가 높은 멕시코 인일수록 앵글로계 백인과 유사한 여가행태를 보이거나(Floyd & Gramann, 1993), 미국이주 중국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조사한 연구에서 문화동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Yu & Berryman, 1996)들을 들 수 있다. Stodolska(1998)는 캐나다의 폴란드 이민 1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여가제약이 이주 초기에 가장 높았고 주류사회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함에 따라 감소함을 발견하였고, 후속연구(Stodolska, 2000; Stodolska & Alexandris, 2002)에서도 이주초기 여가활동에 있어 경험하는 제약요인들이 지속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것이며 새로운 사회에 적응함에 따라 여가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이주자가 경험하는 여가경험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과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문화합의분석¹⁾

문화인류학에서 발전된 문화합의분석은 응답자의 응답유형을 통해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인지영역에 하나의 응집된 문화가 있는가를 규정하고 하나의 문화가 존재한다면 문화적으로 정의된 올바른 답(culturally correct answer)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합의분석은 문화를 인지적(cognitive) 측면에서 정의하는데, 이 정의에 의하면 문화란 그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는 정보이다. 이처럼 공유된 정보로서의 문화의 인식에 바탕을 둔 문화합의분석은 기존의 문화연구가 가정해온 문화의 내적동질성(intracultural homogeneity)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즉 기존의 문화연구가 문화적 단위 - 가령 지역, 국가, 민족과 같은 - 의 내적동질성(intracultural homogeneity)을 가정하였는데, 동일한 문화에 대한 다양한 현지조사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그러한 가정이 맞지 않음을 발견한 것이다(Pelto & Pelto,

1) 문화합의분석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에서 보다 자세히 다룬 바 있다(심재명, 2007).

1975). 문화를 인지영역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는 한 문화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문화적 정보가 같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Romney, Weller & Batchelder, 1986). 현지조사와 소수의 정보제공자(key informant)를 주요수단으로 하는 인류학 전통의 조사방법에서 응답자가 어떤 문화적 정보를 제공하는가, 그가 제공하는 정보가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었으며, 따라서 정보제공자가 얼마나 올바른 문화적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연구자에게 중요한 해결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한 문화합의이론은 다음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첫째, 정보제공자가 연구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가, 그리고 연구자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둘째, 정보제공자들의 답변을 통해 문화적으로 올바른 정보(culturally correct knowledge)를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Romney *et al.*, 1986).

문화합의이론의 논리적 근거는 문화구성원간의 동의(agreement)는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 혹은 지식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즉 어떤 사항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그들이 그것에 대해 서로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 아는 만큼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아는 만큼 동의를 한다면, 역으로 동의하는 정도를 통해서 개개인이 아는 정도를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인 간의 동의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므로 타인과 동의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합의분석은 응답자들이 제공한 정보가 일치하는 정도를 통해 그 영역에 하나의 응집된 문화가 존재하는가를 결정하고 각 응답자들이 가진 문화적 정보를 추론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진 응답자들의 정보에 가중치를 주는 방법을 통해 문화적으로 정의된 올바른 정보(culturally defined true information)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응답자들의 동의(agreement) 정도를 이용해 올바른 문화적 정답을 추론해 낼 수 있다는 논리를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논리를 다양한 주제와 환경에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론과 동시에 조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 문화합의분석의 실행

문화합의분석은 일반적으로 프리리스팅(freelisting)이라는 예비조사를 포함한다. 프리리스팅은 그 명칭에서 보듯 개방형질문을 통해 응답자에게 하나의 인지범주에 속하는 항목들을 자유롭게(free) 나열(listing)하게 함으로써 그 범주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알아내는 과정이다(Weller & Romney, 1988). 가령

Caulkins(1998)는 스코틀랜드의 비즈니스 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성공의 의미에 대해 문화합의분석을 하였는데, 예비조사로서 프리리스트링 조사를 통해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 일을 즐기는 것, 양호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33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프리리스트링을 통해 도출된 항목들은 문화합의분석을 위한 측정도구를 만드는데 이용된다. 질적 연구를 위주로 하는 문화인류학에서 문화합의분석이 숫자형태의 자료를 이용하는 점이 종종 특기사항으로 언급되곤 하는데, 일반적으로 순위법(rank order method)이나 리커트 척도와 같은 평가척도(rating scale method) 뿐만 아니라 'OX'나 '보기 선택(multiple choice)' 형태의 척도도 이용할 수 있다(Romney *et al.*, 1986; Weller & Romney, 1988).

문화합의분석에서는 ANTHROPAC(Borgatti, 1996)이란 소프트웨어가 흔히 이용된다. ANTHROPAC은 문화합의분석을 통해 세 개의 결과를 산출하는데, 첫째 주어진 영역에 합의가 있는가, 즉 하나의 문화(single culture)가 존재하는가를 테스트한다. 이에 관해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규칙은 응답자들을 이용해 요인분석을 실시해 첫 번째 요인의 고유값(eigenvalue)이 둘째 요인의 고유값의 3배 이상이 되면 응답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²⁾ 둘째, 주어진 인지영역에서 각 응답자의 문화적 지식을 보여준다.³⁾ 이는 다름 아닌 응답자 개개인과 집단 간의 상관관계인데 0에 가깝거나 음의 부호는 문화적 지식이 없는 응답자임을 의미한다. 끝으로 문화적으로 정의된 올바른 답변(culturally defined correct answer)을 보여준다. ANTHROPAC은 이를 answer key라는 명칭으로 나타내는데,⁴⁾ 이는 문화적 지식이 많은 응답자의 답변에 가중치를 준 항목평균이라고 할 수 있다. Weller & Romney(1988)는 문화합의분석이 문화적으로 가장 맞는 '하나의' - 즉 answer key 스코어가 가장 높은 - 답에만 관심을 두는 듯이 쓰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의 항목에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문화적으로 올바른 정보란 문화적 합의가 있을 때 그 의미가 있음은 물론이다.

조사방법으로서 문화합의분석이 가지는 하나의 장점은 작은 크기의 표본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문화합의분석이 전통적으로 소수의 정보제공자를 이용하는 인류학에서 비롯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Romney *et*

2) 문화합의분석에서는 변수대신 응답자(case)를 이용해 요인분석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요인 분석과 차이가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결과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4) 이 용어는 번역하지 않고 원어 그대로 이용하였다.

al.(1986)에 의하면 응집된(high agreement) 문화영역이라면 열 명 이하의 표본으로도 올바른 문화적 정보를 추론하는데 충분하며, Weller & Romney (1988)는 일반적으로 문화합의분석은 약 스무명 정도의 표본으로 높은 신뢰수준을 보여준다고 하고 있다. Handwerker(1998)는 3명에서 36명 사이의 응답자와 그들의 동의 수준(level of agreement)을 이용해 동의수준이 높은 경우(90%) 단 3명의 응답자만으로도 높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50명 이하의 작은 크기의 표본을 이용하고 있는 문화합의분석 연구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예를 들면, Boster, 1986; Caulkins, 1998; Dressler, 1996; Handwerker, 1998, 2002).

2. 연구질문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외국인근로자의 여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이론적 개념이 여가계약인데⁵⁾, 여가시간이용과 여가의 의미는 이들의 여가제약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해 고려할 수 있는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 1)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가시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 2) 이들에게 여가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 3) 이들이 경험하는 여가계약은 무엇인가?

3. 자료의 수집

상기한 바와 같이 자료의 수집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우선 문화합의분석의 전(前)단계로서 프리리스트팅 조사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봉사를 하는 동두천 소재 라파엘 클리닉과 서울 해화동 성당 앞에서 매주 일요일 열리는 필리핀 벼룩시장에서 각각 2009년 2월 1일과 8일 이루어졌다. 프리리스트팅 질문은 한국어와 영어로 표기하였는데, 두 곳의 응답자 전원이 영어로 답하였다. 프리리스트팅은 “여가시간에 즐겨하는 것,” “여가가 삶에서 가지는 의미,” “현재 여가활동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못하는 이유,” “한국에 오기 전에 즐겨하던 것을 한국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의 다섯 개 질문을 이용하였다. 여가

5) 민족과 여가(ethnicity and leisure)이론도 넓은 맥락에서 여가계약의 개념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약에 대해 보다 많은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세 개의 프리리스트링 질문을 이용하였다.⁶⁾

프리리스트링된 항목들의 코딩에서는 항목들을 가능한 하위수준에서 범주화함으로써 응답자의 원래의 답변의 형태를 가능한 유지하고자 하였다.⁷⁾ 코딩결과 39개의 여가시간이용항목, 28개의 여가의 의미 항목, 그리고 40개의 여가제약항목이 도출되었고, 이 항목들을 문화합의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에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7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영어로 작성되었다. 이 조사는 2009년 6월 21일과 28일, 이들 동안 해외동 필리핀 벵골시장에서 실시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178명이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⁸⁾ 제조업 종사자는 총 응답자중 95명(53%)을 차지하였는데, 이 중 불완전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86부를 본 논문에서 이용하였다. 제조업만을 분석에 이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외국인근로자라고 부르는 이들이 3D 직업이라고 하는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IV. 분석결과

1. 응답자 특성

본 논문에 이용된 응답자특성을 보면, 86명 중 남성이 81명(9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은 30대(49명, 57%)와 40대(22명, 26%), 20대(9명 10%)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를 보면 미혼 60명(70%), 기혼 25명(29%),

6) 프리리스트링 분석결과는 다른 지면을 통해 보고되었는데(심재명, 2009) 문화합의분석결과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프리리스트링의 개방형 질문과 문화합의분석의 폐쇄형 질문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방법론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7) 예를 들면, 'hard work', 'work', 'working long hours'라는 답변들은 'work'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 이 답변들이 가지는 어감을 유지하기 위해 각각 독립적인 항목으로 코딩하였다. 이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을 최소화하고 최초응답에 들어있는 의미와 느낌을 유지한다는 프리리스트링의 원칙이기도 하다.

8) 직업을 묻는 질문에서 기타(20명), 무응답(14명), 자영업(13명), 미취업상태(11명), 세일즈/마케팅(8명), 교육(7명), 전문직(8명), 공직(2명)으로 나타났다. 기타항목으로는 가정부(housekeeper)나 보육(nanny)라고 적은 답변들이 포함되었다. 이 중에는 혹시 응답자들이 현재 한국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 아니라 한국에 오기 전 모국에서 종사하던 직업을 적지 않았나 하는 의문도 든다.

기타 1명(1%)이었으며, 교육수준을 보면 대졸이 36명(73%), 고졸 12명(14%)이었으며, 대학원졸업도 9명(10%)나 되었다. 한국 거주기간은 3년에서 5년 미만 이 응답자의 절반인 25명(51%)으로 나타났으며, 1년~3년 미만이 15명(31%), 5년 이상 12명(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근로환경에 관한 항목들로서는, 주당 근무일수에 있어 6일 근무가 49명(57%)으로 가장 많았고, 5일이 12명(14%), 5일이 10명(12%)의 순으로 나타났다. 6일과 7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각각 7명(8%), 6명(7%)으로서 일주일 중 하루도 쉬지 못하는 응답자가 15%를 차지하였다. 1일 근로시간에 있어서는 12시간이 22명(26%), 10시간 20명(23%), 8시간 18명(21%), 그리고 9시간과 11시간이 각 7명(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3시간 이상 일하는 응답자도 9명(10%)이나 되었다. 월소득에 있어서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가 44명(51%), 100만원 미만이 27명(31%)로 나타나 150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전체의 83%를 차지하였다.

〈표 1〉 응답자 특성

성별	남(81명, 94%), 여(5명, 6%)
연령	20대(9명, 10%), 30대(49명, 57%), 40대(22명, 26%), 무응답(6명, 7%)
결혼여부	미혼(25명, 29%), 기혼(60명, 70%), 기타(1명, 1%)
교육수준	중졸(1명, 1%), 고졸(12명, 14%), 대졸(64명, 74%), 대학원졸(9명, 10%)
한국 거주연수	1년 미만(4명, 5%), 1년~3년 미만(31명, 36%), 3년~5년 미만(39명, 45%), 5년~7년 미만(6명, 7%), 7년 이상(6명, 7%)
거주동반자	혼자(26명, 30%), 배우자(5명, 6%), 배우자 & 자녀(5명, 6%), 배우자, 자녀 & 부모(6명, 7%), 부모(3명, 3%), 친척(2명, 2%), 친구(14명, 16%), 동료(25명, 29%)
주간 근로일수	5일(10명, 12%), 5½일(12명, 14%), 6일(49명, 57%), 6½일(7명, 8%), 7일(6명, 7%), 무응답(2명, 2%)
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1명, 1%), 8시간(18명, 21%), 9시간(7명, 8%), 10시간(20명, 23%), 11시간(7명, 8%), 12시간(22명, 26%), 13시간(5명, 6%), 14시간(2명, 2%), 14시간 이상(2명, 2%), 무응답(2명, 2%)
월소득	100만원 미만(27명), 100만~150만원 미만(44명), 150만~200만원 미만(9명), 200만~250만원 미만(0명), 250만~300만원 미만(1명), 300만~350만원 미만(0명), 350만원 이상(0명), 무응답(5명)

2. 문화합의분석

1) 여가시간이용현황

국내이주 외국인 근로자의 여가시간이용에 대한 문화합의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앞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문화합의분석은 첫째 요인의 고유값이 두 번째 요인의 고유값의 3배이상 될 때 그 영역에 하나의 문화가 존재한다고 정의한다. 이 경우에 첫째 요인과 둘째 요인의 고유값의 비율이 10.573으로 나타나 외국인 근로자의 여가활동에 있어 매우 응집된 문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여가시간이용에 대한 문화적 합의 검증

Factor	Eigenvalue	Percent	Cum %	Ratio
1	37.864	84.4	84.4	10.573
2	3.581	8.0	92.3	1.043
3	3.434	7.7	100.0	
	44.880	100.0		

여가시간 이용에 대한 answer key 점수를 보면, 일(work), 음식 만들기, 집에서 영화보기, 기도(praying), 친구 만나기, 잠, 음악 듣기, 청소, TV 시청, 인터넷, 교회가기, 등이 주요 여가시간이용활동으로 나타났다. 흔히 일은 여가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여가시간의 행동으로 일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들의 삶에 여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 외에 대체로 일상적이고 수동적인 것들이 주요 여가시간활동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여가시간이용 answer key scores

순위	항목	Answer key
1	일(Work)	6.54
2	음식 만들어 먹기(Cooking and eating at home)	6.38
3	집에서 영화보기(Watching movies at home)	6.21
4	기도하기(Praying)	6.10
5	친구만나기(Meeting with friends)	5.88
6	잠자기(Sleeping)	5.84
7	음악 듣기(Listening to music)	5.84
8	청소하기(Cleaning)	5.81
9	TV 시청하기(Watching TV)	5.73
10	인터넷(Internet: surfing, chatting, game, etc.)	5.71
11	교회가기(Church going)	5.68
12	할 일에 대해 생각함(Planning work)	5.30
13	악기 연주(Playing music)	5.23
14	운동(Exercise)	5.01
15	그냥 집에 있기(Just being at home)	4.94
16	라디오 듣기(Listening to radio)	4.87
17	독서(Reading: books, magazines, newspaper, etc.)	4.67
18	산책(Taking a walk)	4.64

19	외식(Eating out)	4.48
20	공원가기(Visiting parks)	4.28
21	농구(Playing basketball)	3.90
22	장보기/쇼핑(Shopping/going to mall)	3.86
23	한국어 학습(Learning Korean language)	3.77
24	여행하기(Traveling around)	3.62
25	노래방가기(Going to Noraebang/karaoke)	3.44
26	파티(Partying)	3.10
27	소풍(Going to picnic)	3.05
28	당구(Playing billiard)	2.73
29	아이들과 놀기(Playing with children)	2.65
30	밖에서 술마시기(Drinking at bar)	2.62
31	게임(Playing games(cards, board games, etc))	2.59
32	수영(Swimming)	2.32
33	드라이빙(Driving)	2.22
34	등산(Mountain hiking)	2.20
35	탁구(Playing table tennis)	1.95
36	배구(Playing volleyball)	1.91
37	배드민턴(Playing badminton)	1.88
38	극장(Theater going)	1.77
39	축구(Playing soccer)	1.53

2) 여가의 의미

여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고유값의 비율이 3이하인 2.013으로 나타나 응답자간에 합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여가의 의미에 대한 문화적 합의 검증

Factor	Eigenvalue	Percent	Cum %	Ratio
1	19.079	55.4	55.4	2.013
2	9.480	27.5	82.9	1.611
3	5.886	17.1	100.0	
	34.445	100.0		

그러나 answer key 점수가 다른 두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응답자들은 여가에 대해 대체로 의미를 높게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가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기회”, “미래를 위한 준비”, “지식과 기술의 습득”, “진정한 자기(true self)의 발견”, “건강의 유지” 등을 위한 기회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이들이 여가가 삶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여가를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5〉 참조).

〈표 5〉 여가의 의미 answer key scores

순위	항목	Answer key
1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기회(To work hard to make my dreams come true)	6.75
2	미래를 위한 준비(To prepare myself for better future)	6.61
3	지식과 기술의 습득(To allow to develop skill and knowledge)	6.61
4	진정한 자기가 될 수 있는 기회(To be true self)	6.45
5	건강의 유지(To be healthy)	6.34
6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To be with my friends/To keep friendship)	6.07
7	돈을 벌 수 있는 기회(To earn extra money)	5.97
8	재미, 즐거움을 줌(To have fun/Enjoy life)	5.95
9	인생에 대해 보다 큰 관점을 가지게 함(To have larger perspective on life)	5.86
10	개성을 살릴 수 있게 함(To become a unique person)	5.82
11	외로움을 피하게 함(To avoid loneliness)	5.80
12	한국문화를 배우는 기회(To learn about Korean culture)	5.80
13	한국어를 배우는 기회(To learn Korean language)	5.70
14	기분을 좋게 해줌(To be in positive mood)	5.61
15	일의 피로를 풀게 해줌(To recover from tiredness of work)	5.57
16	신앙생활을 할 기회를 줌(To practice my religion)	5.57
17	정체성을 표현하게 해줌(To express my identity)	5.49
18	휴식할 수 있는 기회(To rest and relax)	5.49
19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줌(To meet new people)	5.47
20	삶에 대해 낙천적 생각을 갖게 해줌(To be optimistic about life)	5.24
21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To discover and make most of my potential)	5.02
22	새로운 것을 시도해볼 수 있게 함(To try new things)	5.00
23	가족과 함께 하고 가족의 유대감을 쌓을 수 있게 함(To be with my family/To build family bondage)	4.86
24	삶의 문제들을 잊게 해줌(To make my mind off problems)	4.62
25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얻는 기회(To keep informed about the outer world)	4.44
26	한국을 여행할 기회(To travel around Korea)	4.43
27	지루함을 잊게 함(To escape from boredom)	4.02
28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함(To kill time)	1.72

3) 여가제약

여가제약에 대해서는 고유값 비율이 3.663으로서 응답자들간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상위항목들을 보면, “모국에 있는 가족들을 지원해야 함”, “가족에 대한 의무”, “고된 일”,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함”, 긴 근로시간“ 등이

주요 여가제약요인으로 보고되었다(〈표 7〉 참조). 여가제약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것이 시간과 돈의 부족인데(가령, 2007 여가백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특히 시간과 돈에 여유가 없으리라고 예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그리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각각 #14와 #21)은 의외의 결과이다. 그 외에 다른 많은 제약들은 외국인근로자가 특수하게 경험하는 제약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여가제약에서 발견되는 주요 주제라고 하면 역시 일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온 목적이 취업이며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만한 결과라고 하겠다.

〈표 6〉 여가제약에 대한 문화적 합의 검증

Factor	Eigenvalue	Percent	Cum %	Ratio
1	22.621	68.1	68.1	3.663
2	6.175	18.6	86.7	1.403
3	4.400	13.3	100.0	
	33.196	100.0		

〈표 7〉 여가제약 answer key scores

순위	항목	Answer key
1	모국의 가족을 지원해야 함(Have to support family at home)	6.25
2	가족에 대한 의무(Family obligation)	6.05
3	고된 일(Hard work)	5.83
4	미래를 준비해야 함(Have to prepare for the future)	5.83
5	긴 근로시간(Long working hours)	5.72
6	가족과 멀리 떨어짐(Being far from family)	5.34
7	피곤함(Feeling tired)	5.20
8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함(Have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5.05
9	정신적 스트레스(Mental stress)	4.74
10	기후(Weather)	4.65
11	같이 할 사람이 없음(Have no one to do leisure with)	4.60
12	친구들과 여가 관심이 다름(Friends have different leisure interest)	4.59
13	의사소통이 어려움(Language barrier)	4.24
14	시간 부족(Lack of time)	4.09
15	시설 부족(Lack of facilities)	4.07
16	외로움(Feeling lonely)	3.99
17	자신감 부재(Lack of confidence)	3.98
18	교통수단의 부족(Lack of transportation)	3.98
19	가사일(House chores)	3.97

20	모국에 대한 향수(Homesick)	3.92
21	돈의 부족(Lack of money)	3.84
22	친구들이 시간을 내기 어려움(Friends are busy)	3.75
23	여가기술 부족(Lack of skill)	3.71
24	한국에서 하기 어려움(Leisure not available in Korea)	3.64
25	여가에 대한 관심의 부재(Lack of interest/No interest)	3.56
26	정보의 부족(Lack of information)	3.52
27	실업(Being unemployed/Lack of work)	3.51
28	슬픔(Feeling sad)	3.48
29	직장내 문제(Problems at work place)	3.45
30	부상의 염려(Fear of injury)	3.43
31	시골에 거주(Living in countryside)	3.38
32	장비의 부족(No equipments/Lack of equipments)	3.32
33	질병, 건강문제(Illness/Health problem)	3.27
34	차별에 대한 염려(Fear of discrimination)	3.10
35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움(Cannot accustomed to Korean culture)	2.94 2.90
36	우울함(Feeling depressed)	
37	한국음식에 적응하기 어려움(Cannot eat Korean food)	2.54
38	여가프로그램의 부재(Lack of leisure programs)	2.45
39	한국사람들이 우호적이지 않음(Koreans are not friendly)	2.23
40	비자문제(Visa problems)	1.62

V. 결 론

이상에서 문화합의분석을 이용해 외국인근로자들의 여가시간이용과 그들이 인식하는 여가의 의미, 그리고 여가제약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과를 요약해보면 여가시간이용과 여가제약에 있어서는 합의가 있었으나 여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가시간이용에서 대해 '일(work)'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보고되었는데 고유값 비율이 10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매우 응집된 문화(즉, 합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과 여가가 서로 반대되는 제로섬의 관계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외국인근로자에게 일의 삶의 주된 부분이며 여가란 매우 희박한 부분임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여가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합의가 없었는데, 그것은 앞의 결과와 연관되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여가가 삶에서 비중 있는 영역이 아니라면 그것에서 큰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이고 또한 여가의 의미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합의는 없었으나 응답자들이 여가를 삶의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고(〈표 5〉의 #1,2,3,4,5,7,9,10 등), 그러나 실제로는 일상적이고 수동적인 여가시간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표 7〉의 #2,3,5,6,7,8,9,10 등) 외국인근로자들의 여가에 대한 규범과 실행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여가제약이라고 여겨진다.

앞의 두 질문에서 주요하게 나타난 키워드가 '일'이라면, 여가제약에서도 일과 관련된 요인들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7의 #1,2,3,4,5,7,8 등). 구체적으로 보면 가족부양의무, 고된 일, 미래를 위한 준비, 긴 근로시간, 피곤함, 등이 주요여가제약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들은 모두 일과 관련된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라고 하면 외국인근로자의 여가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주제가 일이라는 것이다. 즉 일이 가장 중요한 여가시간이용이며, 여가의 의미를 - 비록 합의는 없었지만 -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한 여가제약으로서 모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부양을 들고 있는 것은 일이 삶의 최우선적 요소이며 여가는 부차적인 영역임을 가리킨다. 북미지역의 이주외국인들에 대한 문헌에서 이들이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는 경제적 목적으로 이주하였고 그 목적을 위해 이주 초기 여가생활을 포기한다는 구절(Stodolska & Yi-Kook, 2005)은 국내의 외국인근로자들에게도 잘 적용되는 구절이라고 생각된다. 어쩌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여가는 '유예되고 있는 보상(deferred gratification)'일지도 모르겠다.

사실 '일'이 여가제약으로 인식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에게만 특수하게 경험되는 것이 아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여가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긴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만 하더라도 내국인 근로자에게 일이 중요한 여가제약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간 일이 여가제약으로서 가지는 의미는 달라 보인다. 그것은 내국인에게 일이 하나의 구조적 제약으로 인식된다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이 내재적 제약으로 작용하리라는 점이다. 즉 제약의 내면화(internalization)란 개념이 나타내듯(Mannell & Kleiber, 1997), 외국인근로자에게 일이라는 구조적 제약이 너무 강해 여가의 욕구/관심이 없어지는 내재적 제약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것이다. 국내의 외국인근로자에게 일, 일과 관련된 제약들이 협상이 어려운 구조적 제약으로 인식됨으로써 결국 내재적 제약화하는 제약의 내면화가 일어나리라는 해석이 적절해 보인다. 중요한 것은 내재적 제약이 가장 강하고 극복이 어려운 제약이라는 점이다.

여가제약과 관련해 다른 특기할만한 점은 시간, 돈, 정보의 부족과 같이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구조적 제약이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표 7). 이는 문헌조사에서도 쓴 바와 같이 내재적 제약이 성공적으로 협상되지 않음으로써 구조적 제약이 표면화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앞의 단락에서 일, 일과 관련된 제약이 - 구조적제약 보다 - 내재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여가제약의 단계적 가설에 따라 내재적 제약에 대한 협상이 성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고 따라서 대인적제약이나 구조적제약과 같은 후방제약의 경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헌조사에서 언급한 Alexandris *et al.*(2002)의 연구도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여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즉, 내재적 제약이 세 가지 동기유형 중 무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무동기가 비참여에 이른다는 그들의 연구결과가 가리키는 것은 일의 제약이 외국인근로자에게 내면화되었다면 그 결과는 여가에 대한 무동기와 비참여가 되리라는 것이다. Alexandris *et al.*(2002)이 스포츠라는 특정여가에서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그것이 보편적인 여가에서 일어나리라는 점이다. 그들의 여가가 일상적이고 캐주얼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연습, 끈기를 요하는 고투자(high investment)여가나 고관여(high involvement)여가를 찾기 어려운 것은(〈표 3〉 참조) 아마도 이 무동기와 비참여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점에서 본 연구가 의미하는 여가는 보다 적극적인 여가이다. 여가가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며 개인마다 지향하는 여가의 주관적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여가의 선호나 우열을 가르는 것은 다소 위험한 감도 있으나 본 연구가 지향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여가참여는 단순히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친구를 만나는 수동적인 여가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접근하는 여가이다. 그것은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요하는 고투자여가가 삶에 주는 혜택(benefit)이 더 크거나(Mannell & Kleiber, 1997), 관여도가 높은 여가가 더 '좋은 여가(good leisure)'(Nash & Godbey, 1999에서 인용)라는 주장도 가리키듯 여가가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상여가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가의 본질이 자유로움과 내재적 동기라는 점, 외국인근로자가 현재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자발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점, 여가의 의미와 같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외부자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러한 '적극적 여가 편향'에 비판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Jackson(2005)은 개인의 삶에는 중요한 전환기가 있으며 각 전환기마다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고 하고 여가참여나 제약은 그러한 제약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균형(equilibrium)의 한 측면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지적은 외국인근로자에 적용해볼 수 있다. 어쩌면 이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 취업을 위한 한국으로의 이주는 이들의 삶에서 큰 전환기를 의미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여가제약과 적극적인 여가의 결핍은 현재 그들이 당면한 보다 근본적인 필요와 욕구에 부합하는 삶의 한 요소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들이 적극적인 여가를 추구하는 것이 현재 이들의 전환기적 상황에 부합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여가제약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연상된다. 여가제약이란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적절한 여가수준과 경계를 정한다는 점에서 여가제약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설명(예를 들면 McGuire & Norman, 2005)도 외국인근로자의 여가제약과 관련해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여가의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면 여가제약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 설명들이 보다 보편적인 시각, 즉 삶의 복지적 요소로서의 여가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비해 여가의 공적공급이 증가한 것은 여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였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또 공적 자원의 투입을 요하는 공공부문으로서의 여가에 대해 사회에 어느 정도의 동의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과 공급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이 바로 외국인근로자와 같은 사회취약계층일 것이다.

외국인근로자가 경험하는 주된 제약이 내재적제약이라는 본 연구가 이들의 여가정책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제공 뿐 아니라 여가카운셀링이나 여가교육과 같이 여가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보다 중요하리라는 것이다. 전자가 구조적 제약을 다룬다면 후자는 협상이 더 어려운 내재적 제약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인 여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보다 바람직한 것은 외국인근로자 개개인이 여가제약을 덜 경험하는 환경의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삶의 여건에 대한 거시적인 변화를 - 일을 포함하여 - 요한다는 점에서 여가정책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외국인근로자 여가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라면 그들을 위한 여가의 공적공급일 것이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한 여가의 잔여적(residual) 특성은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 자원의 배분에도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여가의 공적공급은 여가보다 더 시급하

다고 간주되는 많은 공공부문과의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을 의미한다. 여가가 개인과 사회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 역할을 통해 여가에 대한 자원의 투자를 정당화한다는 것이 '혜택에 근거한 기획(benefit based planning)'이라는 것이다(Driver, Brown & Peterson, 1991). 그렇다면 앞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여가정책을 위해 필요한 연구는 여가가 그들 개인과 사회에 가지는 의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문화합의분석을 이용해 외국인근로자의 여가에 대해 탐색적인 접근법을 취하였다. 소수민족으로서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인구집단과는 다른 특수한 여가제약을 경험하리라는 것, 또 내국인과는 구분되는 하나의 문화단위로서 그들이 인식하는 여가제약이 그들 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공유된 경험이라는 점에서도 문화합의분석이 적합한 조사방법이었다고 판단된다. 여가의 공적공급의 확대나 개선은 이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관심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그러한 관심의 실증적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수돌(1996).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기업의 합리성과 사회적합리성의 비교관점에서』. 한국노동연구원.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2007 여가백서』.
- 석현호(2003). 국제이주이론의 검토. 석현호 외(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 심재명(2007). 문화합의분석: 새로운 조사방법에 대한 연구. 『관광학연구』, 31(1), 137-158.
- _____(2009). 국내이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가에 대한 연구. 『관광연구』, 24(3), 339-357.
- 오정학·김철원·김종갑(2011). 여가제약협상모형의 타당성 검증 연구. 『관광학연구』, 35(1), 73-98.
- 정철·이훈(2011). 여가제약과 여가동기의 구조적 관계. 『관광학연구』, 35(1), 53-71.
- Alexandris, K., Tsorbatzoudis, C., & Grouios, G.(2002). Perceived constraints on recreational sport participation: Investigating their relationship with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nd amotiv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 233-252.
- Borgatti, S. P.(1996). ANTHROPAC 4.0. Natick, MA: Analytic Technologies.

- Boster, J. S.(1986). Exchange of varieties of information between Aguaruna manioc cultivators. *American Anthropologist*, 88, 428-436.
- Carroll, B., & Alexandris, K.(1997). Perception of constraints and strength of motivation: Their relationship to recreational sport participation in Gree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 279-299.
- Caulkins, D.(1998). Consensus analysis: Do Scottish business advisers agree on models of success? In de Munck V.C. & Sobo, E.J.(eds.) *Using Methods in the Field: A Practical Introduction and Casebook*. 179-195.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 Crawford, D. W., & Godbey, G.(1987). Recogn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s*, 9, 119-127.
- Crawford, D. W., Jackson, E. L., & Godbey, G.(1991). A hierar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3, 309-320.
- Dressler, W. W.(1996). Culture and blood pressure: using consensus analysis to create a measurement. *Cultural Anthropology Methods*, 8, 6-8.
- Driver, B. L., Brown, P. J., & Peterson, G. L.(1991). *Benefits of Leisure*. State Collge, PA: Venture.
- Floyd, M. F., Gramann, J. H., & Saenz, R.(1993). Ethnic factors and the use of public outdoor recreation areas: the case of Mexican Americans. *Leisure Sciences*, 15, 83-98.
- Floyd, M. F., Shinew, K. J., McGuire, F. A., & Noe, F.P.(1994). Race, class, and leisure acitivity preferences: marginality and ethnicity revisited.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 158-173.
- Gobster, P. H.(2002). Managing urban parks for a racially and ethnically diverse clientele. *Leisure Sciences*, 24, 143-159.
- Godbey, G.(1999). *Leisure in Your Life: An Exploration*. State College, PA: Venture.
- Handwerker, W. P.(1998). Consensus analysis: Sampling frames for valid, generalizable research findings. In de Munck V.C. & Sobo, E.J.(eds.) *Using Methods in the Field: A Practical Introduction and Casebook*. 165-178.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 _____ (2002). The construct validity of cultures: cultural diversity, culture theory, and a method for ethnography. *American Anthropologist*, 104, 106-122.
- Henderson, K. A., Stalnaker, D., & Taylor, G.(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barriers to recreation and gender-role personality traits for wom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0, 69-80.

- Hubbard, J., & Mannell, R. C.(2001). Testing competing models of the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process in a corporate employee recreation setting. *Leisure Sciences*, 23, 145-163.
- Hutchison, R.(1987). Ethnicity and urban recreation: whites, blacks, and hispanics in chicago's public park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9, 205-222.
- Jackson, E. L.(1990). Variations in the desire to begin a leisure activity: Evidence of antecedent constrai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 55-70.
- Jackson, E. L.(1997). In the eye of the beholder: a comment on Samdahl and Jekubovich.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 458-468.
- Jackson, E. L., Crawford, D. W., & Godbey, G.(1993).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5, 1-11.
- Jackson, E. L.(2005). Impacts of life transitions on leisure and constraints to leisure. In Jackson, E. L.(ed.). *Constraints to Leisure*, 153-167. State College, PA: Venture.
- Kay, T., & Jackson, G.(1991). Leisure despite constraint: The impact of leisure constraints on leisure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 301-313.
- Livengood, J. S., & Stodolska, M.(2004). The effects of discrimination and constraints negotiation on leisure behavior of American Muslims in the post-September 11 America.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6, 183-208.
- Loucks-Atkinson, A., & Mannell, R. C.(2007). Role of self-efficacy in the constraints negotiation process: The case of individuals with fibromyalgia syndrome. *Leisure Sciences*, 29, 19-36.
- Mannell, R. C., & Kleiber, D. A.(1997). *A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State College, PA: Venture.
- McGuire, F., & Norman, W.(2002). The role of constraints in successful aging: inhibiting or enabling? In Jackson, E.L.(ed.). *Constraints to Leisure*, 89-101. State College, PA: Venture.
- Pelto, P. J., & Pelto, G. H.(1975). Intracultural diversity: Some theoretical issues. *American Ethnologist*, 2, 1-18.
- Romney, A. K., Weller, S. C., & Batchelder, W. H.(1986). Culture as consensus: A theory of culture and informant accuracy. *American Anthropologists*, 88, 313-338.
- Shaw, S. M., Bonen, A., & McCabe, J. F.(1991). Do more constraints mean

- less leisure?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raints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 286-300.
- Stodolska, M.(1998). Assimilation and leisure constraints: Dynamics of constraints on leisure in immigrant populati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0, 521-551.
- _____ (2000). Changes in leisure participaiton patterns after immigration. *Leisure Sciences*, 22, 39-63.
- _____ & Alexandris, K.(2004). The role of recreational sport in the adaptation of first generatio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6, 379-413.
- _____ & Yi-Kook, J.(2005). Ethnicity, immigration, and constraints. In Jackson, E. L.(ed.). *Constraints to Leisure*, 153-167. State College, PA: Venture.
- Trosset, C., & Caulkins, D.(2001). Triangulation and confirmation in the study of Welsh concepts of personhood. *Journal of Anthropological Research*, 57, 61-81.
- Tsai, E. H., & Coleman, D. J.(2009). The influence of constraints and self-efficacy on participation in regular active recreation. *Leisure Sciences*, 31, 364-383.
- Veal, A.J.(2002). *Leisure and Tourism Policy and Planning*. Oxon: CABI Publishing.
- Walseth, K., & Fasting, K.(2003). Islam's view on physical activity and sport,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38, 45-60.
- Washburne, R. F.(1978). Black underparticipation in wildland recreation: alternative explanations, *Leisure Sciences*, 1, 175-189.
- Weller, S. C., & Romney, A. K.(1988). *Systematic Data Collection*. Newbury Park, CA: Sage.
- White, D. D.(2008). A structur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in outdoor recreation. *Leisure Sciences*, 30, 342-359.

2011년 3월 26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1년 4월 21일 1차심사 완료

2011년 5월 6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1년 5월 13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畢